

# 변곡점 위에 선 '장애예술' 활성화, 미래를 디자인하라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2.10.31. \_ Vol.424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신장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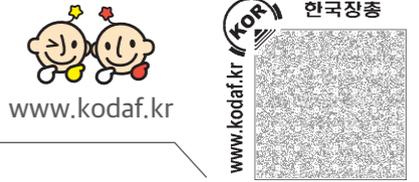
# 변곡점 위에 선 '장애예술' 활성화, 미래를 디자인하라

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최근 장애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등 각종 미디어, 언론 등에 비취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장애인예술의 인식개선과 활성화가 되고 있다.

- '20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22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표
- '22 장애예술인지원3법 『장애예술인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 일부개정, '23. 3월 시행.

급변하는 장애인 예술지원과 정책, 다각화에 따른 구조의 합리적 재편 및 목표 재설정 에 따른 변화와 주요 이슈들, 그러나 잠시...장애예술인이 진정한 예술가로 서기 위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이와 관련하여 장애예술인의 현실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통해 현시점에서 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삶과 함께하는 예술은 개인적(즐거움과 안정), 사회적(결속과 창의성·혁신), 국가적(자부심) 가치를 지니므로,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권리 보장 필요하다<sup>1</sup>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예술과 관련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여러 장애인예술 단체들이 문화부에 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함<sup>3</sup>

## 01 '장애인 예술'활동을 위한 과거 Infra (법, 정책 등)

우리나라는 1980년대 장애인 복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1998년 '제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신장시키고 사회통합의 단계로 진입, 이어 2003년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을 모토로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장애인예술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미비하여 독립적인 지원정책이 불가피하여 복지정책과 엮어서 논의되었음<sup>2</sup>

그 후 2005년 장애인 예술정책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법과 제도, 체계, 단체, 연구, 인프라, 지원 등 많은 발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예술 포함)에 관한 정부 업무가 복지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체계적인 장애인 예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 02 '장애예술'활동을 위한 현재 Infra (법, 정책 등)

### ■ 장애예술인 형성 배경

장애예술인 형성 배경을 보면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 장애(사고, 질병 등)로 예술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50%이상이며, 예술치료나 취미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병원, 복지관, II센터, 장애예술단체 등에서 예술 교육 및 예술 활동을 함

최근에는 장애예술가, 비영리/플뿌리단체, 동우회

1 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2 정중은 외(2013)의 『장애예술 생태계 지원방안 연구』  
 3 심정민(2016).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의 의미와 과제』,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심포지엄



등 각 지역마다 소모임의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예술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으로 나오고 있음

장애인 예술은 자기표현과 참여의 예술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예술성, 장애인의 자기완성의 예술성 등, 전통적인 미학적 측면의 예술성이 아닌 장애인 예술만이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측면에서의 예술성 등 복합적으로 결합된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예술은 인간의 '다름'을 경험하게 하는 특수성과 고유성은 예술표현의 하나의 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 예술의 가치는 미학적 성취라는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 측면 보다는 장애인 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장애인은 사회적 환경(편의시설), 경험(교육, 체험, 기타), 인식부족 등으로 비장애인 보다 사회문화적 기회가 적어 모든 활동에서 뒤처지며, 국가는 이러한 출발지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주요한 책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오고 있음

그러나 '장애예술'의 장애유형별 특수성, 고유성, 장애감수성,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및 법제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장애예술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효과적 수행 및

장애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새로운 시각의 현장 장애인 예술정책'이 필요함

## ■ 용어의 정의

### • 장애 예술인 (Disability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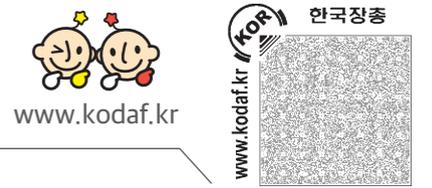
장애 예술인은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장애의 정치적, 개인적, 미학적 의미를 의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자로서 나아가 장애예술을 새로운 예술 언어로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다양성과 평등의 실천을 실행하여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함

또한 법체에 따르면 장애예술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예술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로 정의<sup>4</sup>할 수 있음

### • 장애인 예술 (Arts done by disabled people)

장애인 예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sup>5</sup>함

그러나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스스로 예술작업을 장애예술이라는 용어로 구분 지어 불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및 예술 활동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 장애예술 (Disability arts)

장애예술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협업하여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수월성을 보여 준다는데 주목하며, 장애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기존의 가치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영향력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보임. 또한 문화 다양성과 평등의 기조 아래 '장애예술에 접근할 경우 장애예술은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짐. 즉 장애예술(disability arts)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라는 경험이 반영되어 '장애요소'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표현을 통해 기존의 비장애 중심의 예술 창작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영국에서는 문화다양성의 구도에서 장애예술을 바라볼 경우 장애인 내에서도 다양한 배경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이 문화다양성에 기여한다고 봄<sup>6</sup>

## ■ 장애예술인의 법·정책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작품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됨. [법률 제17415호, 2020. 6. 9, 제정] [시행 2020. 12. 10] 법안에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작품발표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운동 추진 ▲장애예술인 고용사업주 비용 지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개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 • 장애예술인 지원 3법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진흥을 위해 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3건의 개정 법률안이 2022년 10월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 개정안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지원법

(주요내용) :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 「문화예술진흥법」

(주요내용) :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되, 그 추진에 필요한

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5 (전병태 2010)

6 (영국예술위원회, 2010)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공연법」

(주요내용) :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예술인의 현황 및 실태

- '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sup>7</sup>

결과에 따라, 등록된 장애예술인 7,095명, 장애예술단체 223개, 장애유형은 15개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34.3%), 지체장애(26%), 시각장애(15.0%), 자폐성 장애(13.0%), 뇌병변장애(4.9%), 청각/언어장애(4.1%), 기타(2.7%), 장애정도는 심한장애(83.7%), 심하지 않은 장애인(16.3%)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54.2%), 후천적 장애(45.8%)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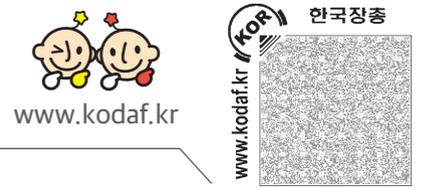
- 예술 활동 분야에서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14개 분야이며, 주 활동 예술분야는 '서양음악'(27.2%), '미술'(26.8%), '대중음악'(11.4%) '국악'(8.5%) 순이며, 평균 활동 기간은 11년, 기능별로는 창작(53.4%), 실연(52.7%), 기획·제작·홍보(7.3%) (복수 응답)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교육 시 어려움으로 '전문교육기관·시설의 부족'(62.0%) '교육비 부담'(56.1%), '전문교육인력의 부족'(4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이 장애예술인을 교육하다보니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보호자는 힘들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됨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육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하며, 전문 장애예술인을 양성하는 공교육 기관도 필요함

- 고용형태 및 수입 현황으로는 예술을 전업(62.2%), '1인 사업자' 형태(34.5%) 장애예술인의 가구소득은 연평균 3,215만원, 개인 소득 809만원이며, 그 중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은 218만원으로 나타났고, 현재 하고 있는 주 예술 활동이 전업인 장애예술인이 대부분이며, 겸업을 하는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 부업을 하는 경우 주로 주 활동 예술분야의 강의, 심사 등을 하고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연령이 낮은 장애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여 시간제 근무 혹은 계약직으로 비예술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발달장애인이 주축인 오케스트라, 공연단, 합창단의 경우 정규직 종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사회적 기업, 또는 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형태로 많은 장애예술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문화예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7 '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이러한 모델들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함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8.0%)', '홍보/마케팅 지원(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지원신청 시 애로사항으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도 어렵지만 지원금 사용 후 정산 과정이 매우 힘들다고 느끼고 있어 향후 정산 시스템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작품이나 개인의 실적을 보고 지원금을 주는 지원사업 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식의 지원사업을 더 늘려주었으면 함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애로사항으로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25.0%)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23.9%) '장애예술인 관련 시설·장비 부족'(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개인 활동 위주로 하는 문학, 작곡 등과 관련 예술인들은 자가에서 작업을 하지만,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등 다수가 대면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함,

거동이 불편한 장애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선택할 때도 제약이 많이 있고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 창작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양한 예술분야를 위한 활동 공간이 많이 마련해주었으면 함

-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협회·단체 223개 중 취미·여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55.3%),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54.9%) 이며,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운영장르 '서양음악'(50.4%) '미술'(25.9%), '대중음악'(19.2%), '국악(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대'(26.4%),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예술의 방향성

·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

- 수립 배경 및 정책 환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2월 시행)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sup>8</sup> '문화예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예술적 지평이 확대되면서 장애예술인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92.4%가 문화예술 활동기회가 충분하지

8 (문광연, '21.4~12월)



않다고 생각하며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 1-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 1-2.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 2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 2-1.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 2-2.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
-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 3-1.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 3-2.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 4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 4-1.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정비
  - 4-2.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
- 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 5-1. 장애예술인 양성교육 체계화
  - 5-2.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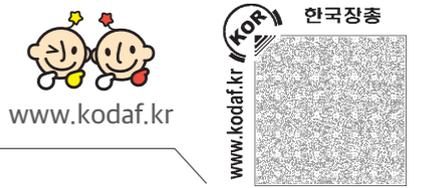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체계도

**추진전략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 장애예술인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회 확대  
공모사업 수요 증가에 맞추어 창작지원 규모 점진적 확대('22년 67억 원 → '26년 200억 원)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다년도 지원, 장애 유형별·장르별 지원 등 지원방식 다양화,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21년 667명 지원 → '26년 2,000명), 재원 확보를 통해 등록 장애 예술인 정기적인 지원 확대함
- 창작활동 공간 확충  
전국 거점별로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전시

공간 및 무장애 창작 공간 문화기반시설 조성,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애예술인 맞춤형 레지던시 시설 조성 및 기존 레지던시 시설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함

- 지역 및 청년 장애예술인 활동 활성화  
지역 거점공간별로 장애예술인 대상 교육·향유·창작 선순환 체계 형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지원, 광역별 장애예술인 단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거점형 장애예술인 단체 육성 기존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및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장애 청년’범주 신설 및 협업 지원함
-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시장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디자인, 포장 기획 등 마케팅 관련 컨설팅 추진, 지원, 예술시장에 장애예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연, 미술, 출판 등 장애인예술 시장 조성, 장애인예술 표준 공연장을 거점으로 대표 공연 제작·실연 후, 국공립기관 및 해외기관 연계를 통해 예술시장 진출 지원함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지원  
공공기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에 장애예술인 창작 미술품 대여사업을 지원하여 장애 예술인의 미술품 유통 확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추진함
-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온라인 정보 플랫폼



‘이음온라인’을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으로 확대·운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장애 예술인 단체들과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협력 사업 진행함

- 장애예술인 국제교류 활성화  
대표적 국제 장애예술인 축제 참가 경비와 작품 제작 지원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장애인 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중심으로 국내외 장애 예술인의 공동창작, 협업 프로젝트, 워크숍 등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함

**추진전략 2**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인식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표준강의안 제작, 강의기법 컨설팅 지원 및 문화 예술 관련 기관 교육 파견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규직 채용 지원,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함
- 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일자리 창출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의 고용주체 발굴을 통해 장애인예술단 등 장애예술인(단체) 일자리 확대 및 중증장애예술인 권리형 일자리\* 창출, 서울시·경기도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제도 활용,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에 장애예술인 예술강사 확대

-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확대 운영, 미술분야 예비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분야를 추가로 편성하고 인센티브 부여, 신진 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화랑의 체계적 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 조성,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강사, 아트샵 등 연계 일자리 창출
- 부처, 민간 등 다자간 협력 및 고용기준 개발로 고용 확산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등 다자간 협약을 통해 고용모델 확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한국 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자간 협약)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보호하고 노동시간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예술인 친화적 고용기준 개발, 장애인예술단 설립 및 장애예술인 채용 기업·기관에 대해 예산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발굴·확대함
- 창업 지원 등 장애예술인 고용기반 확대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 부여, 예술기업 지원 사업 공모시,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이거나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일 경우 가산점(각 2점) 부여(청년, 수도권 외 지역 우대사항과 공통 적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 신규모델 발굴 및 확산,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표준사업장(고용노동부) 설립 확대를 위하여 행정절차 등 컨설팅 지원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금액 지급 등

**- 장애예술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장애유형(발달, 시각, 청각 등) 및 예술 분야별 민간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운영, 장애인 복지관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현장 훈련과 고용 연계 제고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시범 사업 추진함

**추진전략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 장애예술인 맞춤형 시설·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최고 수준의 장애인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 시설로 조성, 대학로의 '이음센터'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비장애인 이음 역할 수행 강화, 공연장 및 전시장에서의 창작활동 및 향유 확대를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 장비 및 편의 서비스 제공 지원함

**- 문화시설 접근성 매뉴얼 제작·보급 및 자유지구 운영**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 조사 및 장애 유형별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문화시설 종사자 대상 무장애 공연장·전시장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연수 등 교육, 장애예술인 활동이 빈번한 무장애 우수 시설 및 지역을 '장애예술자유 지구'로 인증하고 공공 인프라 개선 지원함

**- 국공립 문화시설 개선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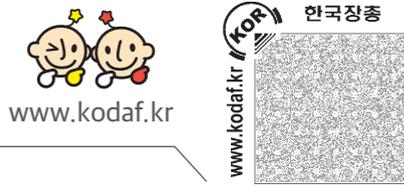
국립 문화시설 및 시·도별 거점 문화시설의 시설·콘텐츠·정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지원, 국공립 공연장·전시장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의무화 도입함

**- 장애예술인 서비스 및 문화시설 정보접근성 환경 구축**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자막·수어·음성 해설 온라인 접근성 지원 사업추진, 장애예술인의 감각적 정보 접근성을 고려,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제공 장애인문화 예술정보시스템 개선, 예술교육 상담,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장애예술 유산 아카이브 구축, 작품 활동 홍보지원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장애예술인 통합지원센터운영, 장애예술인 멘토링 사업, 장애예술인 예술교류 플랫폼 구축 등 네트워크 지원함

**-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및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대국민 및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소개 및 공연·전시 활용, 장애예술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지원함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유튜버 활동 및 1인 방송 제작·홍보지원)



**추진전략 4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기반 조성**

**- 장애예술인 정책 거버넌스 형성**

문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장애예술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TF 구성·운영,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예술정책과 장애인 정책 연계, 한국장애인문화 예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등 주요 예술기관, 지역 문화재단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 추진, 기본 정책방향 및 지역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 우수사례 등 공유를 통해 실행의 실효성 강화함

**- 장애예술인 정책의 전문성 제고**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및 부처·기관 협업 등 강화를 위해 문체부 내 전담인력 확충,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역할 제고 지원사업, 교육사업, R&D 등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 및 기관 업무분석 등을 통해 조직·인력 확대함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활성화**

장애유형과 예술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과 현장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통해 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함

**-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방안 연구, 주요 선진국 장애예술인 정책 사례조사 등 정책 기반자료 구축,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고용 현황, 소득 현황, 문화시설 접근성 현황, 단체 현황 등 3년마다 통계조사 시행함

**-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등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예술작품 개발 및 문화향유 확대, 장애예술인의 메타버스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확보 및 활용 지원, 장애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신기술 현황 조사 및 활용 교육 지원함

**- 인공지능 기반 장애예술인 지원 도구 개발**

'장애예술인'과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창작활동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문화기술 R&D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 장르별·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 개발 지원함

**추진전략 5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 장애인 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지원 확대**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또는 문화 바우처 활용을 통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 학교)에 '문화예술특화교실'사업 도입 등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등 장애인 시설에서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함



- 장애예술인 단계별 예술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예술인 입문형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협력, 다양한 예술분야 교육 지원, 장애인예술단체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장애인예술단체 및 거점센터와 연계한 예술분야별 특화교육 지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아카데미를 통한 심화교육 확대함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과정 확대  
 장애예술인 창작기반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장애 예술인매개인력 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기술, 창작·실연자, 후원매개인력 등), 지역문화진흥원(지역문화인력) 등 협력, 장애예술인의 4차 산업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 대학 예술 학과나 각종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장애인예술 관련 교육과정 포함

### 03 '장애예술'활동을 위한 미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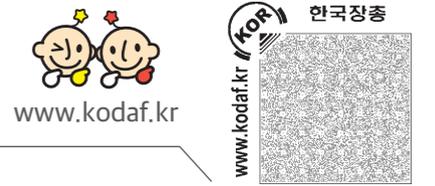
####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혁신적 변화<sup>9</sup>

##### - 법적지위 위상정립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문화 예술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3년마다 전담기관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고유사업 없이 단기 사업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 및 사업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기관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추후 장애예술진흥과 정책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현재의 위상은 재정비 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정법인화를 명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2022.9.27.) 이에 개정안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지원

<sup>9</sup>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사업 및 추진계획안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애예술, 장애예술인 인식개선운동 지원 등을 기관의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했음

##### -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정부정책 방향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관의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 수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관리 체계 기반 마련,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 고도화 및 인력 운영 계획 수립함

##### - 장애예술 전문조직화 및 부서확대

장애예술의 특수성 고려 행정인력 외 장애와 예술을 포용하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일자리 사업 등 신사업 지속 발굴, 국정과제 및 고객 요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지체·시각·청각·발달 등 장애 유형별로 문화 예술 활동 범위 및 활동 시 어려움이 달라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 해소, 장르형 지원에서 탈피 장애인의 시간성과 속도를 고려하고 존중하며, 장애인의 고유한 지각 및 인식체계를 인정하고 개발하는 장애 유형별 사업지원 장애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기반부 신설협약형·관리형 일자리 발굴, 장애인 특화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신기술 기반 장애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지원을 위한 연구 등

장애예술 공연장, 예술기반 조성, 예술교육 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장애고객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 응대 체계 구축 및 부서 전문성 강화 도모 예술지원부 기획사업, 전략기획부 국제교류 등 부서 내 기획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고려 지원사업 부서 전문성 강화 필요. 공공기관 지정('24년 예상) 대비 기획, 관리 부서 역할 명확화 직무급 도입 및 물가상승 반영 정부 기조에 부흥하는 성과와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마련, 물가상승 반영한 처우 개선 필요함

##### - 표준 공연장, 전시장 구축

장애예술인의 창작, 발표를 위한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 증가, 장애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 및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한 장애 예술 공연장 조성, 공연장 임차 운영, 리모델링 공사('21년~'23년) 높은 수준의 창작 및 향유 접근성을 갖춘 공간이자, 예술적 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는 모두에게 열린 공연장 운영

공연장 및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한 장애예술 작품 개발 및 제작, 전문인력 교육 등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 장애인 창작자를 위한 접근성을 갖춘 공연장·편의시설 운영 및 장애인 관람 서비스 운영 등 장애예술 창작공간의 사례 제시 및 무장애 공연장 확산, '포용적 공간'으로서 공연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과 교류 확산을 통해 '장애예술'의 양적·질적 확대



-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인력 및 시스템 운영- 휠체어 이동 보조, 수어통역사 배치, 관람 보조장비 운영, 하우스매니저 및 관객 안내원에게 장애인 관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 등, 웹 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제작 및 공연 사전 안내물, 음성해설 등 홈페이지에서 정보접근성 사전 제공  
공연 관람 접근성 지원- 기획공연 중심으로 접근성 제공 및 필요 장비 구비  
시각장애인 지원으로 큰 글자 안내문 및 점자 안내문 제작, 안내견 동반 입장, 오디오 디스크립션(음성해설) 및 터치투어 제공, 청각장애인 지원으로 공연 자막 및 수어제공, 발달장애인, 자폐 등 학습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 편안한 공연(Relaxed Performance), 쉬운 프로그램북 제공 등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 심의, 평가체계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확대 및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 구조의 합리적 재편 및 목표 재설정, 지원사업 지원체계 및 심의·평가 시스템 현황 분석 지원정책 및 평가·환류 제도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

-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sup>10</sup>에 따라 정보 접근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 및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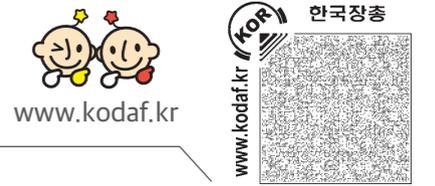
집행·정산 행정지원 제공 필요

이에 따라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 지원신청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보조금 집행·정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행정지원 시범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IT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만족도 제고와 지원사업 효율성 증대, 행정지원 운영을 통한 맞춤 지원 상담 DB 구축으로 보조사업자의 민원 해소 모색함

-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중 장애인예술단 지원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사업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한 기반 연구 필요함  
'21~'22 2년차 시행 중인 장애예술인 일자리 맞춤형 지원사업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장·단기적 발전방향 수립, 전국 장애예술인 고용 현황 조사(기존 자료 활용) 장애예술인 대상 일자리 공급조사, 장애유형, 장애정도, 활동 문화예술 분야별 희망하는 일자리 분야, 유형, 직무내용, 근무조건 등 기존 조사 결과에서 분석, 배리어프리 시설 및 콘텐츠 모니터링 직무, 장애인 대상 장애예술 강사, 4차 산업 기반 신규개발 직무 등 수요공급조사 포함.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유형별 장애인고용 방안 제시, 장애예술인 일자리 사업 방향성 도출 및 제언 등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

- 문화체육관광부내 장애예술 전담부서 설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정책과의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맡고 있으나, 이들이 장애인 예술지원 업무 전담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성이 있는 장애예술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충필요, 그러나 당장 장애인 예술 지원과의 설립이 어렵다면, 장애인 예술 진흥에만 전담할 수 있는 문체부 업무분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장애유형별 특성화 교육 및 축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고 접근성이 보장된 장애(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축제, 2015년 공공지원 공연예술축제 개최 245건 중 장애인예술축제는 확인이 불가, 장애인의 시간성과 속도를 존중하며, 장애유형별 고유한 지각, 인식체계를 인정하고 개발하는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 필요.

국내 장애예술단체는 다양한 장애유형의 구성원이 혼재. 특히 시각, 청각, 발달장애, 정신장애는 장기간 전문적 교육, 훈련, 창작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나 관련 전문단체 부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 양성지원 필요, 장애 유형별 예술 활동의 집중 지원으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자립기반 구축 가능,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정신장애 등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고, 접근성이 보장된 문화예술축제 지원, 다양한 장애유형과 활동분야를 가진 전문예술단체를 발굴 및 육성 지원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사업

2022년 인천광역시 단체육성지원사업

# 제29회 인천광역시 한마음교류대회

더하는 나이,  
더 젊어지는 삶!

| Active Aging,  
Active Life!



2022. 11. 3. (목) ~ 11. 4. (금)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주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INCHEON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후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